

교황님은 '성모님의 이러한 모성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옛날 성모수도원에서 수드하던 아빠스 이삭의 묵상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성모님에게는 "마리아의 어머니 마음" 말고도 두 번째 어머니 마음인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은 세례 받을 때 우리를 낳으시고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 어머니 마음은 부드러움과 선함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와 어머니인 교회는 그분의 자녀를 돌보는 법을 알고 애정을 베푸십니다.

'이런 마음은 어머니 마음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라고 교황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없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경직된 조직, 인간적 따뜻함이 없는 조직, 고아로 버려짐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머니이며 어머니로서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황님은 아빠스 이삭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다른 말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스는 "우리의 영혼조차도 어머니이다." 우리 안에 어머니 마음이 자리잡고 있어 "겸손, 받아들임, 이해심, 선함, 용서함과 부드러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어머니 마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계셨던 성모님에게 하신 말씀에서 곧바로 나온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 사람은 평화안에서 자라난다." 반대로 어머니 마음이 없게 되면 "경직과 규율만이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웃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덧붙이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것 중 하나는 어린이를 보고 웃는 것이며, 어린이를 웃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교황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로 오시어 우리들과 그분의 어머니를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두 분은 "방법은 다르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영적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성체성사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마침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자신을 다시 한번 봉헌할 때, "아들아,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라는 성경말씀을 "오늘 저희가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아멘